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6년 12월 ~ 2017년 1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미네랄 오일, EU, MOHs, 식품 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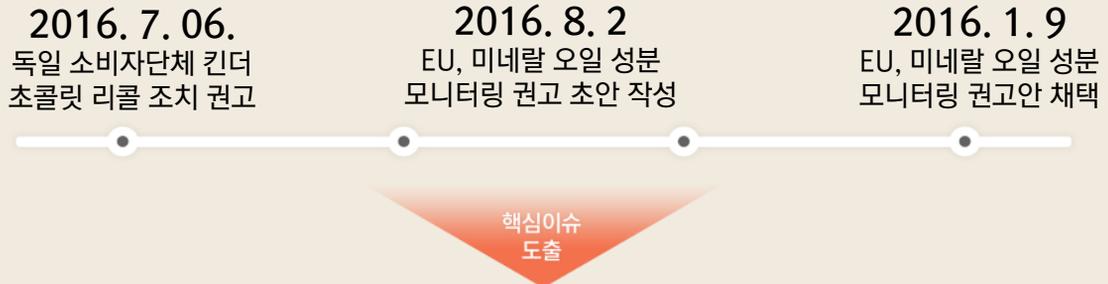
주요 키워드 :

미네랄 오일, EU, MOHs, 식품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EU, 식품 내 미네랄 오일 성분 모니터링 권고”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EU, 식품 내 미네랄 오일 성분 모니터링 권고안 채택

2017년 1월 19일, 유럽집행위원회는 식품 및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해 미네랄 오일 성분(MOHs : Mineral Oil Hydrocarbons)을 모니터링하는 권고안을 채택했다.

권고안 채택에 따라 EU 회원국은 2017년부터 2년 동안 식품 내 MOHs 성분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권고안은 회원국에 정책 지침을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입법을 위한 가이드로 제시된다. 권고안에 따르면 EU 회원국은 동물성 지방, 식물성 기름, 빵과 롤, 시리얼, 곡물, 견과류, 파스타, 소시지, 어육 및 어류 제품, 제과(초콜릿 포함) 및 코코아, 아이스크림 및 디저트 등을 포함하는 식품과 식품 접촉 물질을 모니터링 해야한다.

식품에서 MOHs가 검출된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식품 사업장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모니터링 데이터는 유럽식품안전청(Efsa :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에 2017년 10월 1일, 2018년 10월 1일에 제공되어야 하며 마지막 결과는 2019년 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유럽식품안전청에 따르면 방향족 미네랄 오일 성분(MOAH, Mineral Oil Aromatic Hydrocarbons)은 특히 어린이에게 취약하며 암이나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독일 킨더 초콜릿 제품에서 MOAH가 검출되어 독일 소비자 단체가 리콜 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MOHs 성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MOHs에 대한 규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서는 1월 30일 식품 접촉 물질 기술 전문가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유럽연합에서는 미네랄 오일 성분에 대해서 모니터링 권고를 시행하고 모니터링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미네랄 잔류 기준과 관련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미네랄 오일 성분은 암이나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물질로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적으로 관련 기준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유럽에서 미네랄 오일 성분에 대한 논의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해당 성분에 대한 검출 여부를 주의하고 유럽연합의 유해물질 기준 제정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